

STORY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정파 초월한 소시민, 장발장 같은 사람이 역사 움직여

오동진
영화평론가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용된 음악은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의 엔딩 장면에서 나왔던 '민중의 노래'이다. '레 미제라블'은 영국의 톰 후퍼 감독이 만들고 휴 잭맨부터 앤 해서웨이, 아만다 사이프리트, 에디 레드메인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 출동했던 작품이다. 한국에는 2012년 12월 19일 개봉했고 무려 600만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국내 배급사(유니버설픽처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사장이 톰 후퍼, 휴 잭맨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였다.

반란 부추기는 '바리케이드 노래'
이번에 또 다시 '민중의 노래'가 주목을 끈 것은 아마도 다소 자극적인 가사 때문일 것이다. 일명 '바리케이드 노래'라고 불리는 이 곡의 가사는 민중의 반란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민중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가/ 분노한 대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이것은 민중의 노래이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

이 노래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다. 시위의 주역인 청년 마리우스(에디 레드메인)를 위시해 전 출연진이 몽땅 출연해 온갖 잡동사니로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에 올라 저 건너 군인들의 총칼을 마주하며 마지막 항전을 불태우는 장면이다. 특이한 것은 이미 극중에서 유명을 달린 인물들이 모두 한 컷씩 나온다는 점이다. 아이 때문에 창녀가 됐다가 장발장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병마로 죽는 불우했던 팡틴(앤 해서웨이)을 비롯해, 마리우스를 짝사랑해 남몰래 시위대를 돕다 죽는 에포닌(사만다 바크스), 군인의 총탄에 사망함으로써 시위 청년들의 육체 의지를 단일 대오로 묶어 내는 어린 소년 가브로세(다니엘 허들스톤)까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모두 한 컷씩 스치듯 등장한다. 이 장면들이 꽤나 인상적이어서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이 영화와 엔딩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조차 대체 이 비극적 시위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였는지, 프랑스 역사의 어떤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전 빅토르 위고의 대하소설 '레 미제라블'이 워낙 방대해서 전체 윤곽을 따라 가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린 시절 동화책 '장발장'으로 이 엄청난 소설에 대해 읽기를 끝낸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여전히 소설이든 영화든 '레 미제라블' 하면,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감옥에

새로운 질서의 '산통' 프랑스 대혁명

'레 미제라블' 삽입곡 '민중의 노래'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사용해 화제

왕당·공화파 나눠 100년 유혈 공방

"근데 내가 어느새 황제파인 거야?"

세상은 어느 쪽도 아닌 사람 더 많아

역하고 나와 시장으로 인생 역전한 남자 장발장의 이야기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설 '레 미제라블'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팡틴' '코제트' '마리우스' '플뤼메 거리의 서정시와 생 드니 거리의 서사시' 그리고 마지막 장인 '장발장'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레 미제라블'이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마리우스 등이 바리케이드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노래를 부른 때가 대체 몇 년도에 해당하는지는 것이다.

톰 후퍼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죽도록 고생했다는 후문이 돌면서, 그 이유가 1830년대의 거리·건물·의상·분장 등을 고증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830년대 전후가 이 드라마의 핵심 배경이자 소설 '레 미제라블'의 시대 배경이다. 이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이 사실상 종반부로 돌입할 때이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바리케이드 감옥을 일군의 정치범들이 부수고 나오면서 시작돼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일단락된다. 그렇지만 물론 이 혁명의 '완수'도 불과 3년 만에 자신들이 직접 뽑은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대통령이 독재를 시작하고 곧 나폴레옹 3세로 스스로를 칭하며 제정 시대로 복귀함으로써 무너진다. 프랑스 혁명은 거의 백 년에 걸쳐 이렇게 수십 번을 앞치락뒤치락함으로써 세상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데 따른 산통(産痛)의 혼돈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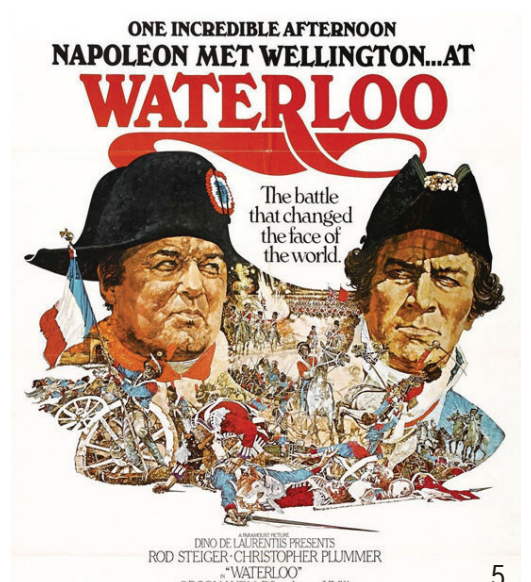


하는 역사적 대명사가 된다.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 시위대가 맞서는 군대는 부르봉 왕가의 황실 근위대이다. 부르봉 왕가는 1814년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쫓아내고 다시 왕정을 복구한 황실 가문이다. 엘바 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은 탈출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마는데 그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나폴레옹 VS 반 나폴레옹 유럽 동맹군의 싸움이었으며, 나폴레옹을 몰아낸 프랑스는 결국 앙상 레짐(ancien regime·구 체제) 왕정으로 돌아갔고 그럼으로써 영화 속에서 처럼 바리케이드 장면, 곧 시위대와 황실 병력 간 일촉즉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1820~30년대인 소위 장발장의 시대와 이후 1870년 프랑스가 일명 '보불 전쟁(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패하고 파리 코뮌이라는 대 혼란을 거쳐 바야흐로 공화정의 시대로 돌입해 현재까지에 이르는 대장정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되는 프랑스 1차 혁명 얘기는 무수하게 많은 영화가 다루어 왔다. 가장 가깝게는 2020년에 나온 넷플릭스 10부작 프랑스 드라마 '라 레블뤼시옹'이다. 이 드라마는 사실 한국의 '킹덤'을 살짝 차용한 것인바 당시 혁명 과정에서의 귀족을 백색병에 걸린 좀비로 묘사한다. 백색병은 일종의 허기병인데 결국 인육과 피를 먹어야 되는 병을 말한다. 18세기 후반 민중의 고향을 빨았던 프랑스 귀족들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셈이다.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 흥행은 성공하지 못해 시즌2 제작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시즌1은 마지막 10부에서 루이16세가 막 등장하는 것으로 끝난다. 루이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강성 공화파인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다.
그런데 왜 바스티유가 맨 처음 혁명의 근거지가 됐을까. 정치범을 비롯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자의적인 사법체계의 희생자로 득실 댔던 곳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모든 서막이 끝난 파리 코뮌의 이야기는 영국 출신 피터 왓킨스 감독이 2000년에 만든 345분짜리 역사 다큐 '코뮌'에 담겨져 있다. 1870년대 프로이센과의 전쟁 배상 문제로 굴종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협상은 왕당파가 주도했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대하며 별도의 자체 정부를 수립한 후 시민군을 조직해 투쟁에 들어간다.

당시 사람들은 왕정으로의 복귀와 프로이센 굴욕 외교를 결사반대했다. 영화 '코뮌'은 일종의 다큐 드라마로 기록영상보다는 현대적 분위기로 재현한 장면이 대부분이다. 코뮌을 2000년대식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이 모든 혼란이 지난 후 새로운 혼돈기(제국주의 시대와 1차 대전)를 앞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한 국가의 국가치고는 '피 묻은 깃발' '자식들과 아내의 목을 따기 위해' 등등 같은 섬뜩한 가사들이 등장하는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진군하는 군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그렇게 피와 잔혹의 역사를 지닌 나라였다는 얘기인 셈이다.
제라르 드 파르디의 주연의 2001년 영화 '비독'에서 등장인물들은 목로주점에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눈다. "난 그 자가 왕당파인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어느 새 황제파인 거야?"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정치 세력은 크게 왕당파와 공화파로 나뉘었으며, 왕당파는 다시 부르봉파(왕정복고파), 오를레앙파(혁명 지지), 보나파르트파(황제파·나폴레옹 지지·혁명 지지)로 나뉘었고, 공화파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자로 나뉜다. 영화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휴 잭맨)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의붓딸 코제트(아만다 사이프리트)만을 생각하며 사는 말 바보이자 소시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프랑스나 여기나, 사실은 장발장 같은 사람이 대다수이다. 역사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움직인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씨네 파일	
나폴레옹(1970) (사진5)	
감독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주연 로드 스타이거
코뮌(2000) (사진3)	
감독 피터 왓킨스	주연 다큐멘터리 드라마
비독(2001) (사진4)	
감독 피토프	주연 제라르 드 파르디외
레 미제라블(2012) (사진1)	
감독 톰 후퍼	주연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라 레블뤼시옹(2020) (사진2)	
연출 오렐리앙 몰라	주연 리오넬 에르도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